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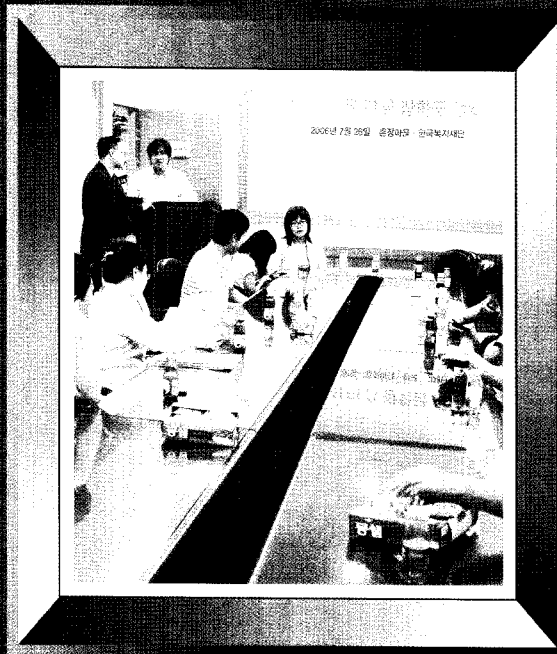


# 행복한 책상, 따뜻한 밥상으로 실천하는 나눔

## 훈장마을의 사회공헌 활동

빈곤아동들의 배고픔, 그리고 공부고픔을 해결해주는 기업이 있다. 바로 국내 최대 학원강사 리쿠르팅 훈장마을(대표 이철훈, [www.hunjang.com](http://www.hunjang.com))이 그 주인공. 훈장마을은 학원전문 토달 서비스 회사인 애드정보기술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애드정보기술은 학원전문 토달서비스 회사로서 학원 솔루션 개발, 학원강사 채용 웹사이트 운영, 학원ASP, 학원SI, 온/오프라인 학원전문가교육 등을 서비스한다. 사랑의 도시락과 교육나눔으로 빈곤아동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을 제공하고 있는 훈장마을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본다.

글\_ 훈장마을



#### 마음만 있다면 나눌 수 있습니다-빈곤의 대물림 끊기

훈장마을은 올 1월 어린이재단에 빈곤아동 도시락지원금 570여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훈장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벌이는 빈곤아동 학원보내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원이나 구직자가 채용 공고, 이력서 등을 등록하면 200원씩의 후원금을 적립해 조성했으며, 지난 1년 동안 6,200여 학원과 15,0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빈곤아동 학원보내주기 캠페인은 빈곤아동들에게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200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도시락 지원기금으로 전달한 금액은 2,000만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빈곤아동의 수는 약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여러 사회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해 늘어만 가는 추세이다. 즉 "빈곤의 대물림"이 악순환 되고 있는 것. 이러한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훈장마을은 한국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빈곤아동 학원보내주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훈장마을 이철훈 대표는 "빈곤아동들이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라는 삶의 희망과 목표를 가지게 하는 한편 아동들이 공부하는데 집중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라고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한다.

캠페인은 "행복한 책상, 따뜻한 밥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빈곤아동들의 학습을 지지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및 기회를 증진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훈장마을에서는 훈장마을을 이용하는 학원과, 한국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곤아동 중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강한 학생들을 서로 연결해 학원에서 직접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보다 많은 학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참여 학원의 홍보는 물론 6개월 이상 참여하는 학원에 위촉패를, 우수활동학원에는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그 결과 6,200개라는 많은 학원이 훈장마을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의 릴레이' 전국에서 그 온기를 나누고 있다.

나눔은 전염성이 있다. 훈장마을이 시작한 나눔에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전국 학원과 구직자가 참여하는 것처럼 말이다. 일단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나눔의 전염성에 좀 더 많은 동참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